



군종주보

2024년 1월 21일(제1177호) 연중 제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실존을 혼드는 하느님의 말씀”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시몬과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고 그들은 평소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서게 됩니다. 그들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했고, 그들을 바뀌게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처럼 세상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존을 혼드는 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무엇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힘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며, 비신자들에게는 ‘과연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종교가 움직이는 힘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매료될까?’ 알고 싶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친숙한 나머지 머리로만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가슴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성경 구절들을 떠올려보면 좋을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자신의 인생을 뒤엎은 그 구절을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tolle lege, tolle lege.”(집어시

어이리)라는 동네 아이들의 말을 듣고 읽은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이 성경 구절에서 -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말씀일 수 있었으나 -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방탕하고 쾌락에 젖어있었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게 해주는 하느님의 힘을 느꼈습니다.

600년대 프랑스의 위대한 물리학자, 수학자이며 철학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자신의 영적 체험들을 자주 메모했고, 그가 죽은 뒤 메모를 묶어놓은 ‘팡세’라는 책을 통해 그의 체험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말들을 많이 남겨 놓았습니다. “마음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더 많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파스칼은 자신 겉옷의 부분에 성경 말씀과 느낀 바를 적어 꿰매어 가슴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프랑스 철학자나 세상 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야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사람의 영혼의 위대함, 당신 말씀을 잊지 않겠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최근에는 성탄 시기에 있었던 이 말씀들을 읽으며 제 마음이 움직였던 체험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움직였던 말씀을 잘 간직해보면 좋겠습니다.



원신희(토마스) 신부
동해(육군 제22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요나 3,1-5.10

회답송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제 2 독 시

1코린 7,29-3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복음

마르 1,14-20

영성제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열두 번째 시집

나머지 세 사람은 1년 전쯤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예비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교인들이 우리를 습격하러 왔을 때 저한테서 세례를 받으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첫째 사람이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양반 가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주교의 진리를 깨달은 후 자기 집안에서 천주교를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이곳 산속의 교우들한테로 이사 와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우리 공소에 포졸들을 데리고 왔던 배교자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 배교자는 첫 배반자인 유다 이스가리옷을 본받아 저를 체포하려고 우리 공소를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 배교자는 이번 습격을 하기 전에도 자기 친척들인 두 예비 신자들에게 온갖 방법으로 모욕과 핍박을 가하면서 자기를 본받아 배교자가 되도록 강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강한 그 두 예비 신자들은 끝끝내 요지부동으로 항구하였습니다.

관가에 잡혀 간 우리 신자들은 용감하게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관원으로부터 하느님을 저주하라고 재촉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의 임금님을 비방하여도 죄악이 되거늘, 하물며 우주 만물을 영원히 지배하시는 하늘의 임금님이신 창조주께 욕을 한다는 것은 천상천하에 용납받지 못할 극악 대죄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이런 큰 죄악을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차례 문초를 받은 후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각자가 자기 부담으로 먹을 것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집안이 몹시 가난하므로 그들의 욕바라지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저에게 여유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저 사람들의 궁핍한 사정을 도와주고 싶지만 그러하지 못하니 한숨밖에 보낼 것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천주교구 양양교회사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새롭게 한 걸음



걸어오던,
그런 길이 아니야.

이젠,
새롭게 사랑해야 해.

살아오던,
그런 삶이 아니야.

새 세상에서.

이젠,
새롭게 시작해야 해.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